

한라포커스 고의숙 교육감 시대, 달라지는 것은 (상) 조직 개편

제주4·3 교육과 신설...교육과정 변화 예고

4·3 교육과 중심 인정 교과서 개발·맞춤 교육과정 추진
교육활동 보호 대책 일원화할 교육감 직속 담당관 신설
6·3 지방선거 쟁점 '정부부교육감' 직제도 재검토될 듯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 교육이 희망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임기를 시작했다. 후보자 당시부터 제주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한라일보는 고의숙 교육감이 이끌어 갈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장학사 1명이 4·3교육... 조직 바꾼다=새 교육감 체제에 들어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마주할 변화는 '조직 개편'이다.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가 확정된 정책 과제에도 조직 정비부터 전제돼야 하는 공약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제주4·3교육과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이다. 이는 기존 교육청 내 1개 과 또는 팀의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에서 조직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제주4·3교육과 신설이 주목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변화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4·3교육과는 제주4·3평화·인권교육은 물론 제주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을 아우르는 부

서로 밀그림이 그려졌다. 특히 해당 과를 중심으로 4·3 인정 교과서 개발, 학교급(초·중·고)·학년별 맞춤 4·3 교육과정 운영 등이 계획됐다. 점에서 기존 도교육청의 '민주시민문화교육과'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몸집을 크게 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과에는 장학사 1명이 4·3평화·인권교육과 통일·나라사랑 교육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4·3교육이 교과 수업 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간 축적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교사들의 연구나 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4·3 인정 교과서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역시 조직 개편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화다. 핵심은 도교육청과 2개 교육지원청(제주시·서귀포시)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응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지역교육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면서도, 해당 사안을 교육청이 접수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부교육감' 임명이나 폐지나=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부부교육감 직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전 김광수 교육감 당시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찬성 측은 복잡해지는 교육 현안을 지자체·의회와의 소통으로 풀기 위해선 정부부교육감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의 명분과 실익이 낮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계획은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용역을 추진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TF(전담조직) 구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수위(준비위) 운영이 7월 중순까지이니 그쯤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둘째날인 2일 서귀포초등학교를 찾아 돌봄·방과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8개 상임위원회, 민주당 7·국민의힘 1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농수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제주시도의회는 2일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막판 신경전이 이어졌던 원구성은 국민의힘에 농수축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결과 ▷의회운영위원장 하성용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심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경철 의원 ▷환경도시위원장 양홍식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한동수 의원 ▷농수축위원장 강종룡 의원 ▷교육위원장 강동우 의원 ▷미래경제산업위원장 김기환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는 3선 의원인 민주당 정민구·양영식·강철남·송창권 의원의 민주당 도의장 경선 패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면서 후반기 의장과 전·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까지 맡을 수 있는 당 내 패널리트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위원들도 모두 선임됨에 따라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3일 각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상임위원회별 의원 명단.

▷의회운영위원회=하성용, 강동우, 강종룡, 김기환, 김대진, 양홍식, 이경심, 이경철, 이남근, 한동수
▷행정자치위원회=이경심,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박안수, 오은, 정다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경철, 강철남, 김경애, 송창권, 양영수, 임해주.

▷미래경제산업위원회=김기환, 강명균, 김황국, 양경호, 한권, 한동훈.

▷환경도시위원회=양홍식, 강정범, 김대진, 김덕홍, 양영식, 이남근.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한동수, 강봉직, 김봉현, 김호, 박지은, 정민구.

▷농수축위원회=강종룡, 김승준, 박호영, 임정은, 장정훈, 하성용.

▷교육위원회=강동우, 강영아, 김해지, 박왕철, 오경남, 이정환, 장희순.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23~25일 개최

15개국 700여명 참가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포럼에는 국내외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 전문가, 학계, 관광업계 등 15개국에서 700여명이 참가해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주제는 '아시아 크루즈 4.0: 경계를 넘어 하나로'다.

포럼에서는 올리비어로 모델리 MSC 크루즈 한국·일본·동남아 지사장의 기조연설을 포함해 크루즈 선사 운영, 기항지 개발, 지속가능한 크루즈 산업 등을 주제로 한 10여개의 전문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제 크루즈 선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크루즈 노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제주바다,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 출현 빈번... 5면/ 고등어가 안 잡힌다... 6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고리파이프상사

고리파이프상사 7월 11일(토) 개업



대표 이창빈

- ◆ HI-3P상·하수도관(고리)
-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 제수밸브등 밸브류일체(신진전공)
- ◆ 이탈방지부속 하수도 맨홀등(대광주철)
-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일체 도·소매 (주)YDI





고리파이프상사

- SK주유소
- 안전LPG

고리파이프상사 제주시 변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